

galerie dohyanglee

PRESS //
JIHEE KIM

Preview Issue ; Jihee Kim _ Sundays
PUBLIC ART, p 118
November 2022

프리뷰

PUBLIC ART | 퍼블릭아트

지희킴_선데이즈
10.19-11.13 디스위켄드룸

이슈



<중오심으로 불타는> 2022 아크릴 종이에 구아슈 140x113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ThisWeekendRoom, Seoul

지희킴은 몸이라는 캔버스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비언어적 반응에 주목한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불완전하고 번덕스러우며 까다롭지만, 그것이 느끼는 가시화되지 않은 감정의 양태는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욕망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지희킴은 인간이 현실에 맞서 획득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기민하게 살피며 그것을 어떤 살체로 끄집어낸다.

작품을 통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으며 변할 수밖에 없음을 실파하던 그는 자신이 집중하는 주제를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드러낸다. 그간 구축과 해체의 양상을 동시에 띠며 스스로의 감각을 지지대 삼아온 작가는 신작 <중오심으로 불타는>이나 <복수를 꿈꾸는>을 통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혁신을 선택한다. 너무 아름다워 위험하게 느껴지는 꽃이나 한치 앞을 모르고 달려드는 나비는 그간 지희킴이 그려온 서로 영긴 모호한 것들과 사뭇 다르다.

그는 정원에 존재하는 요소의 성질을 각 개인의 내면을 대변하는 함축적 매개물로 상징한다. 고독하고, 때로 비참하고, 두근대거나 환희에 차 설레는 감정의 편린을 과감한 형과 색으로 완성한 것이다. 타인에게 남겨받은 책에 드로잉을 얹으며 서재와 긴밀하게 연결했던 작가는 정원과 서재가 많이 닮았음을 깨달았다. 두 공간은 인공적으로 구축된 곳이며 동시에 사람들이 늘 가꾸고 관리하며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것이 전시 <선데이즈(Sundays)>를 위한 개념적, 상징적 배경이 되었다. 서사는 변주됐지만 인간을 둘러싼 사회의 관습적 개념의 범위를 해제하고



<복수를 꿈꾸는> 2022 아크릴 종이에 구아슈 150x131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ThisWeekendRoom, Seoul

그 사이에서 새로운 담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가의 기본 맥락은 고스란히 유지된다. 인간이 가진 원초적 감각의 팔레트가 꽃과 곤충으로 서로 겹치며 완성되는 장면을 지금 만나보자.



<Queen> 2022 린단에서 기증받은 책 페이지에 구아슈 28x43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ThisWeekendRoom, Seoul

Pith of Cake

Weekly HK, n° 893, p 17

May 06th 2022

WEEKLY HK 2022년 5월 6일 금요일

주홍공 한국 문화원 특집

17

Pith of Cake 전시 개요



<2022 젊은 작가전: Pith of Cake>은 전시 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가 4인의 회화, 설치, 드로잉 등이 포함된 약 32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작가들은 전시 공모를 통해 모이게 된 집단이지만, 네 작가 모두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는 연작에 몰두하는 작가들이다. 또한 독창적인 재료 및 기법으로 작가만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전시 제목 'Pith of Cake'은 서양의 속담 'A Piece of Cake (식은 죽 먹기)'에서 차용한 것으로, piece(조각)와 pith(핵심)의 비슷한 발음에서 착안하였다. 케이크는 외면으로 드러나는 비주얼 아트를 의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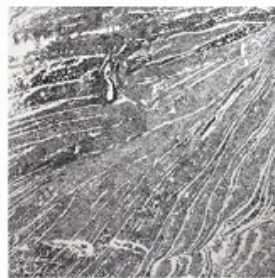
며 Pith(핵심)은 시각예술로 드러나는 작품 속 함축되어 있는 바를 뜻한다. Pithy에는 '간결하나 함축적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 역시 네 작가들 연결하는 키워드이다. 작가들은 너무 많은 것을 화폭에 담아내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간결함에는 함축적인 핵심이 있으며 그 pithy(간결)함을 추구하기 위한 작가들의 매체나 표현(작업) 방식은 전혀 간단하지 않다.

지희 킴 작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북 드로잉(Book Drawing) 시리즈를 홍콩에서 처음 선보인다. 작가는 런던, 서울, 타이베이, 가오슝, 도쿄의 대학 도서관, 지역 도서관, 개인서점, 지인들, 익명의 개인들에게 기부 받은 책의 페이지를 플랫폼이자 지지체로 사용한다. 책은 역사에서 오랜 기간 지식인, 사회 지도층 등 특정 계층만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이었다. 아시아인, 여성, 아티스트인 작가는 책이라는 이성의 지면 위에 신체를 접촉하여 그림을 그린다. 지성의 영역을 침윤하고 덮어내면서 작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책이라는 오브제가 지식 전달의 도구가 아닌 예술적 매체로 사용된 작품에서 무엇이 pith과 무엇이 cake이 되는지 관람객들은 사유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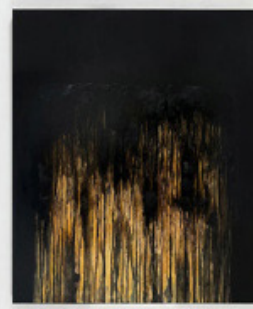
▲ 지희 킴 Jihee KIM 金芝禧, Juliana, Gouache on Donated Book

이영호 작가는 장지에 먹, 묵탄, 돌가루를 사용하여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풍경을 창조해낸다. 작가는 특정한 오브제의 표면과 보이지 않는 이면을 담는다. 작가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작품 속 대상이 되는 사물과 주변부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색에서 작품은 시작된다. 작가는 닥나무로 만들어진 장치부터 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호분, 야고, 묵탄, 먹까지 모두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천연 재료를 사용한다. 우선 장치 위에 호분과 돌가루, 백반과 야고로 칠과 건조를 반복하여 층위를 생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염전의 소금 결정체와 같은 반사빛이 표면 위에 생겨난다.



▲ 이영호 LEE Young Ho 李英浩, AVOIR À DISTANCE, Ink, Charcoal and Mixed Media on Mulberry Janji (H-Janji) Paper, 112x112cm, 2020

- 전시명 : Pith of Cake
- 일시 : 2022년 5월 19일(목)-7월 16일(토)
- 장소 : 문화원 6-7층 전시실
- 주최 : 주홍공한국문화원
- 작가 : 지희킴, 이영호, 피정원, 송명진 총 4인



▲ 피정원 PHEE Jungwon 皮定源, Untitled: After-Image VII, Oil on canvas, Cement powder, Korean Ink, 162X130cm, 2021

피정원 작가는 동양과 서양의 재료를 혼합하여 독창적인 물성을 시도한다. '무제: 검은 길' 시리즈에서 작가는 동양의 '먹'과 서양의 '블랙 젯소'를 합한 감정을 창조하여 배경을 이룬다. 이 독특한 질감의 우주와 같은 검정은 배경인 동시에 작품의 주 요소이다. 검정 색상 외에도 작품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염, 결합, 용매 등 인위적 화학처리를 통해 많은 요소들이 결합된다. 관람자가 작품을 매개로 성찰하고 자아를 확인하게 할 수 있는 Pithy한 추상을 위한 작가의 노력이 느껴진다.

송명진 작가는 세라믹, 청자 위에 안료, 유약을 바르거나 스크린프린트 위에 골라주, 드로잉 작업을 하는 등 다양한 매체로 시도를 한다. 드로잉으로 순간의 장면을 기록하고 도예와 판화 등의 다른 매체로 이미지와 형태를 재구성한다. 작가는 화면 안에 이미지를 기호화하여 점으로 표현한다. 점은 찍는 속도, 찍을 때 주는 힘 등에 따라 그 형태와 성질이 달라진다. 점들은 모두 가다듬은 호흡으로 하나 하나 찍어가는 반복적 행위는 순간을 기록하는 과정이며 계속해서 이어지는 현재들이다. 가다듬은 호흡으로 찍어낸 점은 각각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신체의 운동을 수렴한 점들은 점의 제각기 다른 크기와 강도로 표면 위에 모여 리듬감과 움직임 표현한다.



▲ SONG Myungjin 宋明眞, Void, Pigment on Porcelain, 16.6x24.6cm, 2020

*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한국 젊은 작가전> 시리즈는 한국의 유망 젊은 작가들 세계 미술시장의 거점인 홍콩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 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전시는 특별히 1회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가 4인의 그룹전으로 진행된다. 전시 공모는 <한국 젊은 작가전>과 함께 문화원의 주력 연례 사업 중 하나로 이어갈 예정이다.

* 젯소: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전 물감이 잘 발리도록 하는 역할

여우벌레 콩 볶아 먹는다



1. (작의 기호를) 2018 종이에 과수, 잉크 185x135cm 설치 전경 사진: 조준용 © Jhee Kim All rights reserved
 2. (인간의 생각) 전시 전경 2019 컬러의 스스 사진: 조준용 © Jhee Kim All rights reserved 3. (5%) 2015 기부 받은 책 페이지에 과수 27.3x21.8cm 사진: 조준용 © Jhee Kim All rights reserved 4. (x=b) 2018 기부받은 책 페이지 위에 홀로그래프, 스티카 30x23cm 사진: 조준용 © Jhee Kim All rights reserved

위치, 규칙을 존중하지 않으며 정체성과 체계, 그리고 질서를 교란한다.* 육체가 배설물을 내보냄으로써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물감 또한 화면 어디서든 그저 터져버림으로써 상태를 숨기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공간을 장악하는 이들은 온전한 하나의 신체 규범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다. 지희킴은 이를 '액체적 사고'라 명명하길 제안한다. 이는 처음 얼룩 말을 그럴 때부터 작가가 작업에 포함시켰던 요소로, 당시에는 화려한 색상과 추상적인 마블링으로 비정형성을 담아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더 즉흥적이고 발산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이전에는 정해진 구획을 마블링이 채웠다면, 지금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우연함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듯 질서를 어지럽힌다.

그러한 도전은 아이러나하게도 깨끗하게 마무리된 몸의 외곽선과 충돌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깔끔한 선은 2019년 디스 위켄드룸에서 진행된 작가의 실크스크린 퍼포먼스와 겹쳐 보이면서 판화로 찍어낸 것인가 착각하게 만들고, 흠뻑러진 물감이 어떻게 불쾌하지 않은 범주 내에서 구상적 이미지를 어지럽히는지 살펴보게 된다. 궁극적으로 화면에 더욱 가까이 가는 것, 이러한 접근방식은 작가의 의도를 잘 따라가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조각난 신체에 대해 에어백 역할을 하는 색상은 작가에게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이는 얼핏 비치는 비극을 멀찍이서 짐작하지 못하도록 하며 좀 더 섬세한 관람을 요구하는 유혹이기도 하다. 동시에 비비드한 컬러는 작업의 내용을 회비극이 어우러진 다층적인 차원으로 가져가는 도구이며, 군데군데 심어진 달콤한 케이크와 함께 관람객에게 열어두는 이야기의 틈으로 존재한다. 스케치 작업을 할 때 중시하는

이성적 판단은 온전히 감각에 내맡기는 색 작업을 할 때 떨어진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본질적 속성과 예측 불가능함은 벽 전체를 뒤덮으면서 신나게 해방의 아우성을 치고 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작가는 방의 네면을 가득 채우면서 주마등과 같은 풍경을 길게 이어보고 싶다고 한다. 다음 단계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작업의 이유이자 동력이 된다는 지희킴 작가에게 자신이 창조하는 회비극 무대에서 등장인물들이 어떤 대사를 하고 있을 것 같냐는 질문을 던졌다. "엄청 시끄러울 것 같아요. 서로 대화를 주고받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각기 자기 목소리로 무언가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

* 바버라 크리드(Barbara Creed), 『여성기를, 육입과 위반 사이』, 순화정 옮김, 예이엔, 2017, p. 33

Jihee Kim
PUBLIC ART NEW HERO 2020, 35 pages
June 2020

PUBLIC ART NEW HERO 2020

03 / 07

JIHEE KIM

2020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지희킴

지희킴은 동국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이후 2003년 골드스미스에서 석사과정을 거쳐 2009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디스위전드룸, 송은 아트큐브, 굿호미술관 등에 개인전을 개최했고 프랑스, 타이베이, 영국 등에서 열린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현대미술관, 굿호미술관, OOO미술관 등에 그의 작품이 소장돼있다.



(작가의 기호물 6) 2018 종이매 185x135cm

지희킴 회화의 몸 근상들은 완전한 모습이 아닌 절단, 훼손, 변형, 왜곡된 신체의 비정형 덩어리로 나타난다. 작가는 우리의 인식에 입력된 몸의 정의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왜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몸에 굴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왜곡된 몸의 이미지를 통해 들여다본다. 그는 이러한 신체 이미지들의 제사를 통하여 고대 그리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확고히 근원하고 있는 완전한 미에 대한 갈망과 영웅적이고 완벽한 몸의 정의에 대해 의심을 제기한다. 그의 작업은 사회와 역사가 제시한 고정적이고 경직된 몸에 관한 고체적 인식을 유동적이고 개별적인 '역체적 사고'로 사유하기를 제안하는데, 이러한 역체적 사고는 작가의 작업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작가는 화면 전반에 흩뿌려진 근직한 체액의 형상으로 이러한 유동적 신체관을 표현한다. 그의 회화에 등장하는 상처 입은 채 피 흘리는 호랑이, 허탈하는 사티구니, 몰강한 흔적을 남기며 이동하는 문어, 잘린 손과 발, 레이저를 쏘는 눈, 송 빛은 얼굴의 형상들은 서로 뒤엉키며 끈끈하게 박면을 흐른다.

작가는 이 비극을 그의 작업에 등장하는 절단되거나 변형된 신체들의 형상과 컬러를 통해 파편화된 몸들의 축재이자 회극으로 바꾸는 것을 시도한다. 이처럼 지희킴의 작업에서의 몸은 회극과 비극이 공존하는 회극의 공간으로 작동한다.

Tokyo Arts and Space Annual Report
p.63, p.87
2020

キム・ジヒ
KIM Jihee

滞在期間 / Residency Period: 2020.1.7-2.19

CIK: International Creator Residency Program



《A Night Trip》2020 A Night Trip, 2020

私達の感覚の中に根付く「身体的なユートピア」に疑問を抱き、人々が完璧な身体や美しさを希求する理由を追い求めるキムは、浮世絵のラインや描写に関心を持ち、そこでみられる所作を分析し絵画を制作しました。さらに、地域住民とのドローイング・ワークショップを実施。浮世絵の蛸のイメージから、その滑らかで自由な動きに新たな身体の可能性を見出し壁画を制作。ワークショップの参加者の作品とともに展示しました。

Questioning the "physical utopias" implanted in our perceptions, Kim searches for the reason people seek perfect bodies and beauty. Interested in the lines used in Japanese ukiyo-e prints and paintings, she analyzed the gestures used in them and applied them to her paintings. Kim also did a drawing workshop for people of the community. She created a mural expressing the new physical possibilities she found in the fluid and free movement of ukiyo-e octopuses and displayed it along with works of the workshop participants.

PROFILE

1983年ソウル生まれ。ソウルを拠点に活動。2013年ロンドン大学ゴールドスミスカレッジ修了（ファインアート）。主な展覧会に「Uncanny Skin」(Gallery SoSo, 平沢, 韓国, 2019)、「B.P [body proofs]」(ThisWeekendRoom, ソウル, 2019)、「From the most intense to the most secretive」(錦湖美術館, ソウル, 2018) など。

Born in Seoul in 1983. Lives and works in Seoul. Graduated with an MFA from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in 2013. Recent exhibitions: "Uncanny Skin," Gallery SoSo, Paju, Korea, 2019, "B.P [body proofs]," ThisWeekendRoom, Seoul, 2019, "From the most intense to the most secretive," Kumho Museum of Art, Seoul, 2018.

レジデント地域交流

キム・ジヒ ワークショップ&作品展示

Exchange with Local People by Creator-in-Residence

Workshop & Exhibition by KIM Jihee

ワークショップ / Workshop : 2020.2.1

作品展示 / Exhibition : 2020.2.6, 2.7



その土地に対する理解やインスピレーション獲得の手段として、ソウルや台北、ロンドンなどで地域住民とのワークショップを展開してきたキム・ジヒが、記憶をテーマにドローイング・ワークショップを実施。参加者はキムの作品を起点に連想ゲームのように自身の記憶を辿り、最終的に描いた作品について発表しました。制作した絵は、TOKASレジデンスー近隣の元自動車部品販売店の内壁に、キムが描いた壁画とともに展示されました。

Kim Jihee has conducted workshops in places like Seoul, Taipei and London, deepening understanding of each locality and gaining inspiration for new work. This time she led a drawing workshop focused on memories. Using a word association game based on Kim's works, the participants explored their memories for subjects to create a work and then present to the group. These works were displayed along with a mural by Kim painted on the wall of a former automotive parts store near the TOKAS Residency.

DATA

会場 : TOKASレジデンスー (ワークショップ)、株式会社スズキオートパーツ (作品展示)

Venue: TOKAS Residency (Workshop), Suzuki Auto Parts (Exhibition)

PROGRAM >>> P.63

87

Dongsun Ahn, *Into The Garden*

<https://store-kr.uniqlo.com/display/displayShop.lecs?storeNo=83&siteNo=50706&displayNo=NQ1A06A15A87>

December 2022



WOMEN MEN KIDS BABY



검색



로그인



장바구니



Into the Garden

매일 입는 옷으로 매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 유니클로의 라이프웨어 LifeWear는 그러한 믿음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유니클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유니클로 신사점에 갤러리 공간을 마련하여 지희킴(Jihee Kim) 작가의 최신작을 전시합니다. 지희킴 작가는 비비드 한 컬러를 분출하며 활취부터 중요까지 생생한 감정을 대변하는 아주 특별한 정원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글/ 안동선 (아트 콘텐츠 디렉터)

사진/ 이현준, 백상범, 디스위켄드룸 제공

지희킴 Jihee Kim, <중오심으로 불타는 Burning with Hatred>, 2022, gouache on Arches paper, 140 x 113 cm



지희킴

Jihee Kim

Q1. 이번 유니클로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이번 유니클로 전시에서는 <Garden> 시리즈의 대형 회화 한 점을 포함해 총 3점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작업실 근처 식물원에 즐겨 방문하며 받았던 영감과 위안을 통해 새롭게 작업하게 된 시리즈입니다. 그동안 저는 결핍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왜 사회가 정의하는 아름다운 외양에 집착할까’라는 질문에 친척하며 정형비정형의 신체를 주요 소재로 한 회화와 드로잉을 제작해왔어요. <Garden> 시리즈는 나로 향하던 시선을 우리로, 몸으로 집중된 생각을 감정으로 옮겨본 작품입니다.”



Q2. 이번 유니클로 전시에 선보이는 세 작품은 정확히 어떤 식물인지 알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고, <증오심으로 불타는 Burning with Hatred>, <두근거리는 Pit-a-Pat>, <차분한 Tranquil> 등 문학적인 감정 표현을 제목으로 갖고 있어요.

“원래 제목 짓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편이에요. 제목은 현대미술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관람객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작가와의 만남의 문을 열어주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Garden> 시리즈를 작업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작업의 바탕이 되는 짧은 픽션을 짓는 거였어요. 그 가상의 이야기는 아이들 연습생, 회사원, 주부인 세 여성이 유일하게 쉬는 일요일,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고 가라앉은 감정들을 바라보며 쓴 일기들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 디스위켄드룸에서 했던 개인전의 제목이 <<선데이즈 Sundays>>였죠. 각 작품의 제목은 이 픽션에 등장하는 세 인물의 감정선을 식물의 형상에 빚대어 풀이된 것입니다. 식물원에 갈 때마다 현장에서 빠르게 드로잉을 했어요. 사진을 찍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식물의 형태를 즉흥적으로 재해석하며 드로잉 했기 때문에 그림 속 식물들은 무언가를 닮았으면서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외형을 갖고 있죠. 컬러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 고유함과 특별함을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 물감을 섞어 새로운 색을 만들어 사용했어요.”



<차분한 Tranquil>

지희킴 Jihee Kim, <차분한 Tranquil>, 2022, gouache on Arches paper, 76 x 57 cm

<두근거리는 Pit-a-Pat>

지희킴 Jihee Kim, <두근거리는 Pit-a-Pat>, 2022, gouache on Arches paper, 76 x 57 cm



Q3. 그럼 <Garden> 시리즈의 바탕이 되는 픽션은 관람객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건가요? '중요심으로 불타는' 인물이 픽션에서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세 여자의 일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작은 아씨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시도라 픽션을 공개하기는 조금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중요심으로 불타는 인물의 정체는 밝혀도 괜찮을 것 같네요. 바로 회사원인 A예요. 그녀의 중요심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상사를 향하고 있지요. (웃음) 저도 <작은 아씨들>을 재밌게 보았어요. 저는 작업할 때 원래 문학에서 많은 영감을 받는 편인데 요즘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보는 영화와 TV시리즈 등에서도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요. 요즘의 분위기가든가 등장인물의 대사 한 줄, 패션 스타일까지 아주 사소한 단서도 영감을 줄 때가 많아서 메모하거나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는 워밍업으로 드라마의 장면을 드로잉해보기도 해요."



《Sundays》

디스위켄드룸에서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열린 개인전 《Sundays》 전시 경험



〈깊은 잠에 빠지는
Sleeping Like a Baby〉

지희김 Jihee Kim,
〈깊은 잠에 빠지는 Sleeping Like a Baby〉, 2022,
gouache on Arches paper, 76 x 57 cm



〈눈물을 참는
Fighting Back Tears〉

지희김 Jihee Kim,
〈눈물을 참는 Fighting Back Tears〉, 2022,
gouache on Arches paper, 76 x 57 cm



〈복수를 꿈꾸는
Overthinking of Revenge〉

지희김 Jihee Kim,
〈복수를 꿈꾸는 Overthinking of Revenge〉, 2022,
gouache on Arches paper, 150 x 131 cm

Q4. 캡션을 보니까 회화 작업은 모두 'Gouache on Arches paper'라고 적혀 있던데, 종이에 과슈로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회화 작가들이 캔버스에 아크릴이나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니까요.

"저는 종이에 과슈라는 수채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과슈와 종이 자체가 주는 감각 때문인 것 같아요. 많이들 사용하는 캔버스는 저를 멀어지지만, 종이는 포용해주는 느낌이에요. 팔레트에 과슈를 개어서 종이라는 표면 위에 얹을 때 저를 꼭 빨아들이는 느낌이 있어요. 또 과슈는 제가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비비드 하고 맘껏 분출하는 컬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줄 뿐만 아니라 물을 얼마를 섞느냐에 따라 여러리리 한 수채화의 투명함부터 두껍게 쌓이는 유화의 질감까지 표현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은 물감이라 좋아해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



Q5. 카다멈 레드 딥, 로즈, 코발트블루, 프리시안 블루 등 작업대에 펼쳐 놓은 물감 이름만 읊으며 하루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가님 작품의 특징 중 하나로 생생한 컬러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 옷차림도 그렇게 컬러풀 할지 궁금해요. (웃음)

내성적인 편이어서 그런지 옷을 입을 때는 무채색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아주 화려한 컬러의 옷을 입고 생생한 컬러감을 즐겨요. 작가들마다 작업실을 정리하는 스타일이 있을 텐데 저는 작업대에 물감을 짝 펼쳐 놓는 걸 좋아해요. 오래 생각하지 않고 빠르게 컬러를 한눈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젠타와 버건디 계열이 특히 많은 걸 보면 그쪽 컬러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Q6. 작업실에 책도 많네요. 제가 저희킴 작가님의 작품을 처음 본 건 책의 펼친 면에 그림을 그린 '북 드로잉 시리즈'였어요. 이 시리즈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한 마디로 언어의 장벽,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에서 시작된 시리즈예요. 대학 졸업 후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작업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영국 유학을 떠났어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영국 현지인 학생들보다 현저히 느린 속도로 영문 학습서를 읽으며 어느 순간 완벽한 이해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 텍스트를 이미지로 본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와 거주하던 지역의 도서관에 예술 대학 학생인데 책을 기증 받을 수 있겠느냐, 고 용기 내어 편지를 썼어요. 기대치 않게 단 하루 만에 기부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고 덕분에 350권의 책과 함께 시작했죠. 북 드로잉 시리즈는 책을 펼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부터 시작한 기억의 연쇄 작용에서 도출한 이미지를 그리는 프로젝트예요. 예를 들어 'mother'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면 엄마와 관련된 하와이, 하와이에서 주운 조개 목걸이, 조개 요리를 잘하던 할머니, 할머니가 짜준 노란색 스웨터, 이런 식으로 '엄마'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기억의 연쇄 작용에서 드로잉으로 변환했을 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단계에서 멈춰 그림을 그려요. 말하자면 제 드로잉으로 텍스트를 무력화시키면서 덮어 나가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Sundays》

디스위켄드룸에서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열린 개인전 《Sundays》 전시 전경



《Being Equal》

지희킴 Jihee Kim, 《Being Equal》, 2022, gouache on pages of book donated in London, 20.3 x 28.5 cm



《Reflection》

지희킴 Jihee Kim, 《Reflection》, 2022, gouache on pages of book donated in London, 24.5 x 33 cm



《Queen》

지희킴 Jihee Kim, 《Queen》, 2022, gouache on pages of book donated in London, 28 x 43 cm